



우리나라 자생수종 1

△ 마가목

- ▶ **과명** : 장미과(Rosaceae)
- ▶ **학명** : *Sorbus commixta* Hedl.
- ▶ **영명** : Mountain Ash
- ▶ **한명** : 馬牙木



전 승 훈

경원대학교 도시조경학부 교수

□ 분포 및 생태

• 자생적 분포범위(native range)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로 분포하는 동북아시아종으로써 서양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원도 이북지역을 포함한 중, 북부지역의 해발 500m이상의 높은 산지가 분포중심이고, 입지환경적으로는 적습하고 부식질이 풍부한 북사면에서 아한대 침엽수종과 함께 자란다.

• 생육가능범위(useful range)

우리나라에서는 자생적 분포범위가 넓은 만큼 전국 어디에서나 생육이 가능하다. 특히, 고산성 수종이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우수하여 도심지를 포함한 저지대에서의 성장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 생태

냉온대지역의 대표수종으로 고산지대에 주로 자라며 새들에 의한 종산분산기구를 통해 분포영역을 확장한다. 자연적 또는 인공적 교란후에는 왕성한 맹아지의 신장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등 무성번식력도 우수하다. 양수 또는 중수성 수종으로 햇빛이 풍부하고, 습윤하며 부식질이 풍부한 양토 또는 식양토에서 생장이 양호하다. 뿌리는 다소 천근성으로 수평적으로 분산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 마가목

□ 식재기능 및 기법

마가목은 수형과 계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심미적, 생태적 식재기능을 지니고 있는 우수한 식물소재이다. 가장 바람직한 기능은 표본목(specimen tree)으로서의 가치이다. 다줄기성으로 수관이 넓게 퍼지는 자생지의 수형특성을 고려할 때 비교적 넓은 공간을 대상으로 한 표본기능이 최적이나 밀식재배되어 유통되는 특성을 고려하면 임의식재나 군식을 통해 집단적 표본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도시의 도로변의 선형녹지대에서는 독립수나 3주식재를 통해 가로경관의 초점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마가목의 탐스러운 열매는 야생조류의 먹이원으로 적합하고, 지점부에서 나오는 맹아지엽이나 신엽은 초식동물의 섭식자원이 되기 때문에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조성용으로 적합하다.

□ 크기와 습성

낙엽활엽소교목으로써 다자라면 수고 약 6-8m에 이르며 초기생장은 빠르편이나 비교적 생장이 느린편이다. 곧추자라는 습성도 있으나 아랫가지가 많이 갈라져 자라 둥근수형을 형성하게 되고, 맹아지의 발생이 왕성하다. 따라서, 마가목하층에



▲ 마가목



▲ 마가목 조경적 이용

는 별도의 관목이나 지피식재를 할 필요가 없고, 맹아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지적합성

햇빛에 대해서는 자생지의 특성이 양수 또는 중간수이나 식재환경에서는 양수성 특성을 보여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바람에 대해서는 천근성 수종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어느정도 내건성도 있으나 적합한 조건의 입지를 경감시킬수 있기 때문에 주풍방향에 대한 입지는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토양반응에 대해서는 적응범위가 넓으나 약산성 환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계절적 효과

마가목의 미적 가치는 수형미도 빼어나나 꽃과 열매, 단풍에 있다 할 것이다. 전체 생육기간에 걸쳐 펼쳐지는 약 9-13개의 소엽으로 구성된 기수우상복엽은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 풍부한 녹음과 색채의 변화, 그리고 비교적 섬세한 질감을 연출한다. 특히, 봄에 돌아나는 새순은 말의

이빨과 같이 힘차게 돌아난다하여 馬牙木이라는 한자명이 붙여졌듯히 생동감의 상징이다. 가을철에 주로 황색으로 곱게 물드는 단풍잎 또한, 지나온 일상을 뒤돌아 보게하는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편, 초봄에서 초여름에 걸쳐피는 백색의 복산방화서는 수관층을 덮듯히 수놓고, 가을철에 붉은 색으로 성숙하는 열매도 가지 끝에 매달려 정열의 춤을 춘다.

□ 유지관리

광역분포종으로 다양한 입지환경의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별다른 유지관리상의 어려움이 없으나, 병충해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 특히, 천공성 곤충의 위해나 고사병(fire blight)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통풍이나 관수 등 적정한 생육환경의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 관련 종

당마가목(S. amurensis)과는 소엽수가 적으며, 겨울눈에 털이 없고 점성이 없는 점이 다르다. 

